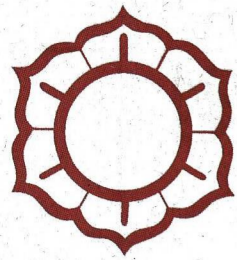


불교총지종은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을 교주로, 음마니반메
흠을 본존으로,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
교화를 표방한 재가종단입니다.



총지종보

2004년
6월 1일
화요일
제56호

이 달의 종조법설

진리란 마음에 있는 것이다. 그 때문에 이 마음을
깨치면 곧 진리를 깨친 것이다. 자기 마음을 알지
못하고 무슨 일체 사물을 알려고 구할 것인가?
다른 이의 마음을 알려고 하기 이전에 먼저 자기
마음을 알아야 한다.

발행인 : 우승 편집인 : 김용주 인쇄인 : 김준배

www.chongji.or.k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사항을 준수한다. 구독신청 : (02)552-1081

총지종 종령에 효강종사 추대

엄격한 계행과 정체성확립

총지종(총리원장 우승)은 5월 17일 서울 총리원에서 전국 스승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승단총회를 열고 지난 3월 29일 입적한 수성 대종사 후임 종령으로 효강종사를 추대하였다.

효강종사는 총지종에 입문한 이래 중앙종무원, 중앙교육원장, 총리원장, 법장원장, 사회복지재단 이사장, 불교텔레비전 사장, 불교방송 상임이사 등 종단과 교계의 주요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종단의 기틀을 바로잡고 위상을 강화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으며, '철저한 계행이 수행의 근본'이라는 신념을 몸소 실천하면서 계행이 엄격한 종단의 풍토를 조성하고, 시시불공 처처불공의 실행으로 항상 염승정진하시는 수행법으로 교계의 본보기가 되었다.

또한 총리원장과 법장원장 재임시 종

단의 홍보와 포교의 일환으로 총지종보를 창간하고, 종교의 대사회운동으로 사회봉사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여삼재가노인복지센터를 위탁받고, 도제양성을 위해 젊은 인재들을 모집하고 교육하여 종단의 내실을 기하는 동시에 홍보와 포교를 강화하였다.

이로써 총지종은 효강종사의 종령추대를 계기로 도제양성과 교육제도개선, 포교활성화, 사회복지활동 등을 강화하여 종단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변화와 개혁으로 종단의 위상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제9대 효강 종령 추대식은 하반기 49일 불공 회향일인 7월 15일 이후 봉행될 예정이다.



제9대 종령 효강 종사

법 명 : 효 강(曠岡)
속 명 : 안종호(安鍾濤)
생년월일 : 1927. 1. 30
출생지 : 경남 밀양
행계품수 :
대법사(항 마 급) - 1985. 2. 1
정사(청정지) - 1986.10. 1
종사(출세간위) - 2000. 4. 1

- 출거이력 :
- 1985. 7. 20 총리원 및 총지사 근무
 - 1985. 11. 18 종정사무위원
 - 1986. 4. 22 원의원, 종의회 의원, 중앙교육원원장
 - 1986. 9. 13 총리원장
 - 1989. 7. 29 중앙교육원근무
 - 1991. 1. 1 제 1차 연장근무
 - 1991. 1. 1 일상사 주교
 - 1991. 10. 5 종령권한 직무대행
 - 1991. 2. 11 총리원장
 - 1996. 2. 15 불교방송이사
 - 1996. 2. 17 법장원장 및 중앙교육원장
 - 1998. 5. 29 사회복지법인 이사장
 - 1999. 11. 24 불교텔레비전 대표이사
 - 2001. 2. 16 기로스승
 - 2004. 5. 17 총지종 제9대 종령추대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누리

연등축제와 부처님 오신날



동대문 야구장에서 열린 부처님 오신날 봉축 연등축제에서 총지종 보살들이 등경연 대회에서 입상한 종대팔원등을 들고 입장하고 있다.

"환하게 태어나신 부처님, 처음 오르는 해와 같아라. 바라볼수록 기쁨에 차니 공중의 달을 보는 것 같네. 부처님의 황금빛 몸의 광명은 온 세상 두루 비취기쁨을 주고, 중생을 구제하는 일곱 발걸음 편안하고 조용히 대입으셨네."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고 부처님의 나투심을 기리기 위한 봉축행사가 전국에서 다채롭게 봉행되어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누리에 가득한 세계평화와 각 가정의 행복을 발원하였다.

특히 5월 23일 서울 동대문 야구장에

서 열린 연등축제는 총지종을 비롯하여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등 서울지역의 모든 불자들이 참가하여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고 소원성취를 발원하였으며, 연예인 김병조의 사회로 진행된 1부에서는 각 사찰별 연등단의 장기자랑 공연과 각 그룹별 공연으로 흥겨운 한마당을 연출하였다. 동대문에서 조계종 한마당을 연출하였다. 동대문에서 조계종 한마당을 연출하였다. 동대문에서 조계종 한마당을 연출하였다.

를 오백천원하게 물들게 하여 서울 시민들의 환호와 갈채를 받았다.

또한 부산에서는 부산역 광장에서 부산 지역 불자들이 동참하여 연등축제를 열고 부산역에서 서면까지 거리행진을 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로 불심을 고취시켰다.

총지종은 서울에서 스승님들과 30여 명의 연희단, 40여명의 풍물패, 200여명의 교도들이 참석하여 준제결연회 형식화한 장엄등을 필두로 연등경연대회에서 입상한 대장계 만다라의 종대팔원등을 현상화한 팔원등을 들고 거리행진

을 하였다.

또한 부산에서는 동해중학교 불교반 학생들의 풍물패를 필두로 하여 스승님과 500여명의 교도들이 참석하여 즐거운 한마당을 연출함으로써 총지종의 위상을 과시하였다.

한편 5월 26일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전국 사원에서 일제히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회를 봉행하여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누리에 평화와 사랑이 충만하고 모든 불자들의 건강과 소원성취를 발원하였다.

수성대종사, 법상원스승 49재 불사

극락세계 왕생성불 발원

지난 3월 29일 입적한 제8대 종령 수성 대종사 열반 49재불사가 5월 15일 대구 개천사에서 전국 스승님과 교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되었다.

수성 대종사는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여러 서원당을 개설하여 총지종을 포교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모든 일을 처리함에 있어 자내중의 법을 활용하여 처리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우승 총리원장은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49재불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스승님과 교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모든 사원에서 각 사원별로 수성 대종사의 극락왕생 불을 기원하는 49재불사를 지극정성으로

로 발원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왕생성불 하였을 것입니다. 비록 속세의 연을 떠났지만 내세에서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리라 생각하며, 종단발전과 중생구제를 위해 응징정진 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지난 4월 5일 열반한 기로스승 법상원 전수의 49재불사가 부산 삼필사에서 5월 20일 봉행되었다.

이날도 전국의 스승님과 교도들 200여명이 참석하여 "올 때도 빈손으로 가듯 갈 때도 빈손으로"라는 가르침을 남기신 법상원 전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였다.

"자신의 허물을 먼저 참회하라"

특정 대종사 추모1주기 불사

지난해 5월 4일 성남 기로원에서 입적한 특정 대종사 추모1주기 불사가 5월 4일 서울 총지사에서 서울, 경인교구 스승님과 유가족, 교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되었다.

이날 행사는 재무부장 시정 정사의 집공으로 개식사와 헌화 및 훈향정공, 추신사, 천수경독송, 실지정진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정 대종사는 1972년 총지종 창종 구성원으로서 종조 원정 대성사와 함께 총지종의 기틀을 마련하고 생활의 불교화, 불교의 생활화로 장소와 시간에 구애없이 불공하는 자세로 일상에서 생활하는 총지종의 종지로써 교화를 활성화시켜 불교계의 주요종단으로 성장시켰다.

또한 종조 원정 대성사 열반 후 제2대, 4대, 6대, 제7대 종령으로서 총지종의 스승 및 교도들에게 "화평하고 화합하여 입으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참되고 진실한 말을 행하고, 항상 남의 잘못을 보지 말고 자신의 잘못을 먼저 참회하고 선행을 행하라"는 가르침을 강조하시며 총지종의 정신적 버팀목이 되었다.

하반기 49일 불공 입재

자신의 마음자리를 살피는 불공법

총지종 하반기 49일 불공이 5월 28일 서울 총지사를 비롯하여 전국사원에서 전국 스승님과 교도, 사부대중들이 동참한 가운데 입재되었다.

하반기 49일 불공은 4월 8일부터 7월 15일까지 49일동안 봉행되며, 특히 49일 불공 기간에는 조상들의 영식을 전도하는 천도불공을 통해 운회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여 전생으로부터 쌓아온 업장을 소멸하고, 자신의 안녕과 더불어 자녀들의 소원성취를 발원하는 불공을 드린다.

하반기 49일 불공에 즈음하여 우승 총리원장은 "이번 하반기 49일 불공동안 항상 마음자리를 살피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참회하고, 남편과 자식,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웃는 마음과 실천을 행하고, 불평과 불만을 버리고 과거의 나쁜 기억을 버리는 참 수행을 위해 마음을 닦는 불공법을 바로 세워 용맹정진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였다.

축비소리

행이 없는 빈 몸은 길러도 이익이 없고
덧없는 돈 목숨은 아껴본들 보전하기 어렵도다
용상의 덕을 바라거든 오랜 고통을 능히 참고
사자죄를 기약하려거든 욕심과 쾌락을 버려야 하리

행자의 마음이 깨끗하면 모든 하늘이 칭찬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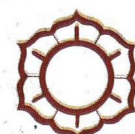
도인이 책을 생각하면 선신들이 떠나가느니라
사대로 된 홀연히 홀연된 몸은 오래 보존키 어려운 것
오늘도 별찌 저물었으니 아침부터 서둘러야 하리

『법심수행장』중에서

하반기 49일 불공

불교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참 진리를 체득함으로써 부처님처럼 살고자 노력하고 중생들에게 사로잡힌 번뇌와 집착, 망상, 아집을 제거하여 해탈에 이르게 하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이란 자신의 마음을 바로잡고 욕바라미를 실천함으로써 마음속에 편안함과 환희심을 가지는 것으로 마음자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번 하반기 49일 불공동안 항상 마음자리를 살피면서 참 수행을 위해 마음을 닦는 불공법을 바로 세워 용맹정진하시기 바랍니다.

- ◆ 일시 : 총기 33년 5월 28일~총기 33년 7월 15일
- ◆ 장소 : 총지종 전사원
- ◆ 대상 : 사부대중



불교총지종
The Buddhism chongjijong

사설

신임 총령의 추대에 즈음하여

북경 대총사의 입직 이후 오랜 공백 기간 뒤에 수성 대총사께서 법통을 이어 총령직에 취임하였으나 악화된 건강으로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고 세연을 마감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겪는 동안 종단 내의 주요한 사안들이 결정을 보지 못하고 미루어진 관계로 종단 개혁이 답보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사태를 안타까워하던 중 지난 달 17일 승단의 전 구성원이 참여한 가운데서 총령 추대가 이루어졌으며 제9대 총령으로 효강 종사가 추대되었다.

효강 종사는 학식과 수행으로 종단 내에서는 물론 교계에서도 명망이 있는 분으로 총지중보의 영도자로서 손색이 없는 분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그동안 총령의 부재로 어수선한 종단내의 분위기를 효강 종사의 총령 추대로 마감하게 되었음은 종단발전을 위하여 실로 다행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 달 총령 추대식을 앞두고 종단의 발전과 밀교의 대중화를 위해 49일 동안의 대경전에 매진하고 계시는 효강 종사는 평소에도 뚜렷한 원칙과 굳건한 소신으로 종단의 혁신을 주창해온 분이기에 종단내에서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종단발전을 위해 종단을 영도할 총령으로서 효강 종사에 대한 기대가 크다.

본 종단은 올해로 창종 33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사람으로 치면 이제 장년의 나이로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해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창종 초기의 열화같은 교세확장이 시대의 흐름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한 관계로 주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동안 종단 내의 여러 가지 개혁안이 나왔으나 강력한 추진력이 뒷받침되지 못해 구두선에 그치고 말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효강 종사는 이러한 점에서 역대의 총령들과는 달리 개혁의 가치를 드높이고 강력한 추진력으로 이를 실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평소에도 제2의 창종 정신으로 종단의 모든 부조리와 불합리를 근절하고 접근대적인 사고방식을 불식하여 시대에 맞는 교화방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창해 온 분이기에 종단을 위한 일이라면 소신과 원칙이 있어 일체의 양보가 없었던 강직한 성품을 고려할 때 일부의 해이한 기강과 안일한 정신자세에 일대 혁신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여기에 맞추어 승단 내에서도 총령을 정신적 정점으로 삼고 총리원장 이하 집행부의 결정과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전 승단의 구성원들이 지엽적이고 아집에 얽매인 모습을 버리고 폭넓은 안목과 시대에 걸 맞는 사고방식으로 종단 개혁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이제 개혁의 큰 수레바퀴 앞에서 과거와 같은 편협한 자세로 종단 발전의 앞길을 가로막는 불상사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 종단은 지금 비약적인 발전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날개를 꺾고 삼류 종단으로 주저앉고 말 것인가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총령 이하 모든 승직자와 종사자들이 어떤 자세로 종단을 바라보고 매진해 나아가야 하는가에 따라 우리 종단의 앞날이 결정될 것이다. 격변하는 시대의 파도 앞에 우리 총지중보가 우뚝 설 절호의 시기가 도래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전 승단이 일치단결하여 매진해 나가면 그 결과는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종단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해결책을 누구보다도 명확히 파악하고 있는 신임 효강 종사는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여 평소의 소신과 신념에 바탕을 두고서 종단의 일대 혁신을 이룩한다면 총지중보 다시 한번 번방에 교세를 펼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근무여건 조성 서로간의 대화를 통한 의견수렴

우승 총리원장 취임 후 총지중보 총리원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종전의 수동적이며 비관적인 자세를 버리고 능동적이며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출과 진취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각종 행사 및 종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다. 우승 총리원장이 총리원에 입성한 이후 줄곧 "각자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이며, 활동적인 의견제시를 제안함과 동시에 제안된 의견을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합리적인 부분은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말하여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위기조성과 더불어 각 부장과 국장 등 중간 관리층도 최대한 종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기탄없는 비판과 더불어 발전방안을 토론했으며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변화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우승 총리원장은 "우리 종단을 이끌고 미래를 설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젊은 종무원들이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근무의욕제와 창의적인 안전제시를 통해 잠재된 종단의 분위기를 쇄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조직에는 항상 반복과 시기, 질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각자의 마음을 닫고 서로간에 대화 없기 때문에 형성되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있으면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고, 서로간에 대화를 통해 오해를 없애야 화합과 단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동료들 간에



◇우승 총리원장과 총리원 종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업무개선과 발전방안을 위해 토론회를 하고 있다.

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는 상부상조의 정신과 협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종단의 모든 대소사는 토론을 통해 서로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기탄없는 대화와 아이디어를 주문한다."라고 말하였다. 한편 총리원은 종단의 발전을 위해 우승 총리원장을 비롯하여 각 부장과 종무원들간의 워크샵을 계획중이다.

총지중보 관성사, 백월사 신축 완공 만다라의 밀법도량으로 중생제도



◇서울 중심지의 밀법도량을 위해 이번엔 새롭게 신축한 관성사가 우람한 지대를 자랑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관성사(주교: 해정)가 지난 1월 착공한 이후 4개월만인 5월 14일 종로구청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고 5월말 모든 공사를 마무리 하였다.

관성사는 종로구 행촌동에 건평 168평 지상 3층의 건물로 총공사비 약 7억 4천으로 종단 역사상 최초로 총지중보 유지재단에서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종단의 사원신축공사에 있어 공사비를 절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대전시 도마동에 위치한 백월사는 해당구청의 공영 주차장으로 편입됨에 따라 지난 3월 19일 대로의 대지 109평, 건평 216평의 4층 빌딩을 구입하여 내부수리공사를 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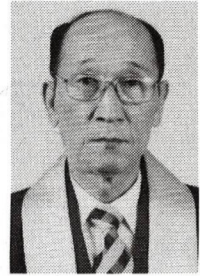
공한 후 5월말 서원당 공사를 마무리 하였다.

종단의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는 "각사원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가장 힘든 점은 사원 건축양식의 표준화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공사 진행 시 각자의 의견차이가 많아 공사 진행 여부의 결정이 지연됨으로 인해 공사의 지연이 초래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래서 앞으로는 "종단적인 차원에서 사원신축과 수리공사를 담당할 수 있는 상설적인 전문가를 만들어 사원의 표준화와 통일성을 기할 수 있어야 하며 종단 대부분의 사원을 보면 규모만 크게 지을 뿐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사원신축시 설계에서부터 각 건물의 활용성을 먼저 파악한 후 설계를 의뢰해야 하며, 현재 각 사원별 유휴공간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종단적인 차원에서 실재를 파악하여 자성 학교 및 복지시설, 임대 등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포교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 되었으면 한다."고 말하였다.

한편 부산 덕화사는 5월 21일 전담건설위원회를 소집하여 사원신축의 방향과 건물형태에 대해 토론한 후 설계를 의뢰하였다.

머리좋은 바보들

이 세상에 머리좋은 바보들이 많다. 지자(知者)는 불신(不信)이요, 언자(言者)는 부지(不知)라 했다. 아는 자는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도리어 걸리기 때문에 경계하라는 것이다. 현명(賢明)한 자는 가능한 한 말을 적게 하고 도리어 못한 자가 말이 많은 법이다. 공부하는 스님들은 쓸데없이 남의 방을 쳐다보지 않고 보여주지 않는 것은 불려고 하지 않는다. 알려주지 않는 것은 알려고 하지 않는다.



기로스승 법정대장사

차각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남도 죽고, 나도 죽는 것이다. 믿음에는 두가지가 있다. 머리로 믿는 사람과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있다. 머리로 믿는 사람은 교리(敎理)나 경(經)은 줄 줄 의우고 많이 알지만 아는 것을 실천을 못하고 상(相)으로만 끝나는 사람. 남에게 잘 말하지만 진짜 자기는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마음으로 믿는 것은 인과를 믿고 십선업(十善業)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지식은 없어도 꾸준히 배운 대로 실천하는 사람

“
아기들의 착각(올면 다 되는 줄 안다)
국회의원 출마자들의 착각(당선되면 부정은 안한다고 생각한다)
망상자(妄想者)의 착각(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
머리좋은 사람들의 착각(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그러나 머리좋은 사람들은 남의 것을 보려고 하고 알고 기를 쓰고 난리다. 이 세상에 착각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다. 엄마들의 착각(우리 애가 머리는 좋은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공부를 못하는 줄 안다) 아기들의 착각(올면 다 되는 줄 안다) 국회의원 출마자들의 착각(당선되면 부정은 안한다고 생각한다) 망상자(妄想者)의 착각(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 머리좋은 사람들의 착각(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진리를 만나고 좋은 명예를 얻었다 해도 마음을 바로 쓰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구만 생각하면 명예와 부는 잃게 되는 것이 진리다. 나라와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부동산투기, 부정축재, 탈세, 사기)은 머리좋은 바보들이라고 할 수 있다. 머리좋은 바보들은 남을 살리고 나도 사는 공생(共生)의 원리를 모르고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다고

지나호 1면광고 충청전리교구장 수증원을 법성으로 바로잡습니다.

알림방

- 5월 22일 정심사 진일심 전수 처녀 결혼식을 서울 공군회관에서 거행하였음
- 하반기 49일불공이 5월 28일부터 7월 15일까지 전국 사원에서 봉행됨
- 한일불교교류대회가 6월8일부터 12일까지 일본에서 개최됨

우리 모두 부처님의 참사랑을 어려운 이웃과 나눕시다

2004년 4월 27일부터 2004년 5월 25일까지

개천사 김옥희 20,000	만보사 조덕남 10,000	수인사 한애숙 20,000	정각사 김정연 20,000	총지사 최순진 10,000
개천사 김홍련 10,000	밀인사 김덕배 10,000	실보사 안경숙 10,000	정각사 김지훈 10,000	해정사 박종석 10,000
개천사 박병선 5,000	밀인사 배태임 5,000	실지사 박병성 5,000	정각사 남숙자 20,000	해정사 수증원 20,000
개천사 이희권 10,000	밀인사 신대식 5,000	실지사 성대성 6,000	정각사 박운용 3,000	해정사 수증원 20,000
관성사 정인순 10,000	밀인사 신동희 5,000	실지사 이숙례 10,000	정각사 박훈휘 10,000	해정사 자성신 10,000
관성사 조정숙 10,000	밀인사 신동희 5,000	실지사 이화수 5,000	정각사 신영자 5,000	해정사 정길오 10,000
관성사 황성녀 20,000	밀인사 이연수 10,000	실지사 장근도 20,000	정각사 윤선자 10,000	해정사 조성기 10,000
기로원 대 관 10,000	밀인사 이재호 10,000	실지사 정경자 5,000	정각사 이란이 10,000	해정사 조숙자 10,000
기로원 대자행 10,000	밀인사 이혜성 5,000	실지사 정우석 5,000	정각사 조현필 5,000	해정사 해보심 10,000
기로원 법장화 10,000	밀인사 정정희 5,000	운천사 김부자 40,000	정각사 황영숙 10,000	김남연 10,000
기로원 상지화 10,000	백월사 박삼순 5,000	운천사 박보경 20,000	정심사 김정위 20,000	김정희 20,000
단향사 공철봉 2,000	벽룡사 오미수 3,000	운천사 이형란 10,000	정심사 박옥란 20,000	안화자 10,000
만보사 박선희 10,000	선립사 진원대 30,000	성화사 우담바라 100,000	정심사 일여행 10,000	진관사 15,000
만보사 박정심 10,000	수인사 김봉기 10,000	자석사 우바이 70,000	총지사 김성민 20,000	
만보사 배정임 10,000	수인사 김진 10,000	정각사 김명진 20,000	총지사 이인성 30,000	
만보사 정쾌자 20,000	수인사 이순자 10,000	정각사 김점남 10,000	총지사 지심행 10,000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중보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의 복지사업에 소중한 기여입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중보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중보 사회복지 재단
전화 552-1083, 3452-7485

지상설법



기로스승 법지원자수

계행을 가지고 수행하는 사람은 오관을 잘 다스려서 오욕에 들어가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절에 가는 것을 비방하는 가족도 있는데 왜 그럴까요? 부인의 행동을 비방하는 것이 불법을 비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에 다녀도 허를 고친 것 없고 남편이나 시어머니에게 수순하지 못하고 항상 원망하고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절에 가서는 절도 잘하지만 시어머니 남편에게는 반절도 안합니다. 아내의 도리를 되새겨 불만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지혜없이 지은 바라 이제부터 지난 일을 참회하고 미래에야 마땅하게 종과 같은 아내되어 시부모와 남편 섬겨 내복을 다 하도록 교만하지 않으리라"

그러나 오관을 잘 다스리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관은(육안(肉眼), 천안(天眼), 혜안(慧眼), 법안(法眼), 불안(佛眼))을 말하는데 사람마다 상대를 보는 마음의 눈이 다르므로 차별이 생기는 것입니다. 미운사람, 고운사람, 이 편 저 편 차별이 생기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것도 서로가 보는 마음의 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욕은 왜 생기는 것입니까?

첫째, 견물생심이라 재물을 보면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재물욕. 둘째, 남녀간에 일어나는 색욕. 셋째, 입에달면 삼키고 입에 쓰면 뱉고 좋은 음식만 탐하는 식욕.

넷째, 감투쓰고 좋은 자리 얻으려고 하고 싫은 자리 싫은 자리 얻으려고 하고 싶은 명예욕. 다섯째, 잡자려고 하는 수면욕.

마음을 다스려라

입만 살아서 말만 앞서고 실천 못하는 사람 자기는 안하면서 남이 해 놓으면 이렇고 저렇고 불평만하는 사람. 이러한 다섯 가지 욕심은 수행을 바로하고 인과의 이치를 알게 되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활불교라 가정생활도 잘하면서도 교도들의 마음도 이해하며 교화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약보(藥補)불요, 육보(肉補)요 (약으로 몸을 보호하는 것보다 고기가 좋고)

육보(肉補)불요, 식보(食補)라 (고기로 몸을 보호하는 것보다 음식을 고루 먹는 것이 좋고)

식보(食補)불요, 심보(心保)라

틀림없이 이번 과거에 급제를 하겠느냐? 하니가 관상쟁이가 선비의 얼굴을 이리 저리 보더니 "그참 이상하다 며칠전의 관상하고 지금의 관상이 달라졌다면서 오늘 당신의 관상을 보니까 떨어지겠다."면서 "며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다. 선비가 사실대로 살생부 이야기를 하니가 그러면 그렇지 그 못된 마음이 관상을 바꾸어 놓았구나 하더라 합니다. 마음 한번 잘 못됐다 버릇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마음을 잘못쓰면 기혈이 역행하여 관상도 바뀌고 운도 바뀌는 법입니다. 얼굴이 못생기고 빌어먹을 사주팔자를 타고 났어도 마음을 잘쓰면 관상도 바뀌고 사주팔자도 바뀌

거음이 생기고 귀신을 생각하면 귀신에게 화를 당하고 사기꾼을 가까이 하면 사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모든 화는 마음이 가는 곳에서 화가 생기는 법입니다.

인파를 보면 옛날 부처님이 연못가를 지나시다가 천안으로 연못속을 보니 눈앞이 빨간 증생들이 보이는데 그 연못속이 지옥이라 서로가 물속에서 올라왔다 내려갔다 아귀타름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하늘에서 거미줄이 한가닥 내려오는데 바람에 날려 연못속에서 들어가지 않아 부처님이 신통으로 거미줄을 잡아서 연못속에서 낚으니 어떤 사람이 그 거미줄을 잡아타고 지옥을 벗어나 올라오다가 아래를 내려다 보니 다른 지옥증생들이 개미떼같이 붙어서 올라오는데 처음 올라가던 사람이 "이 거미줄은 내 것이다. 너희들은 오지 마라 줄 떨어진다 이놈들아!" 하고 고함을 치자 잡았던 손 위에서 거미줄이 끊어져 도로 연못속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부처님이 "삼독이 남은 증생들은 구제하려해도 할 수가 없구나" 하시며 전생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먼저 거미줄을 잡았던 사람은 전생에 살인강도 흉악범인데 그가 산길을 지나가다가 발래 거미줄을 보고 발을 비켜밧아 살려준 것이 인연이 되어 거미는 죽어서 천상에 가고 흉악범은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 연못속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거미가 천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자기를 살려준 은인이 연못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고 은혜를 갚으려고 거미줄을 내려준 것인데 자기 혼자만 살리고 욕심을 내어 결국은 도로 지옥으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이 마음을 놓아버리면 모든 착한 일을 잊어버리게 되지만 그것을 한 곳에 모아두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마음을 닦아 마음을 잘 써야 하겠습니까.

행복하다. 불행하다는 내 마음이 결정 부지런히 마음을 닦아 마음을 잘 정리함

행복하다. 불행하다는 내 마음이 결정 부지런히 마음을 닦아 마음을 잘 정리함

(음식보다 마음을 바로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주가 좋고 관상이 아무리 좋아도 심보다 못한 것입니다. 마음을 잘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 어떤 선비가 과거공부를 열심히 해서 과거보러 한양에 가서 속소를 정해놓고 시장거리에서 나가니 관상보는 사주쟁이가 있어 이번 과거에 내가 급제를 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관상쟁이가 선비의 사주를 풀어서 관상을 이리저리 보더니 이번 과거에 틀림없이 합격할 것이라고 합니다.

선비는 좋아서 복채를 두둑히 주고 속소로 돌아와서 살생부를 만듭니다. 과거에 급제하고 고을원이 되어 부임해서 가면 구두쇠영감 이놈은 징역을 몇 번 살리고 수물이 이놈은 내마음을 안드니 곤장을 50대치고 만들어 이놈은 벌금을 100냥 내게하고 이놈은 어찌하고 저놈은 어찌하고 하면서 벌써 사포가 된 것처럼 살생부를 만들고 난다.

드디어 과거 시험날이 다가왔습니다. 외기알양해서 과거장으로 가다가 그 관상쟁이에게 물었습니다.

부처님에게 복달라 돈달라 하고 빌고 조상님에게도 빌어보지만 복을 주고 안주고는 부처님 마음입니다. 부처님 마음에 들도록 조상님 마음에 들도록 지극정성으로 발원하면 들어줍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이 마음으로 지어졌으며 마음 하나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는 내 마음이 정하는 것입니다. 요즘 보살님들이 옛날에는 염승만하면 공덕이 있고 해탈이 되더니 지금은 해도 해도 잘 안된다고 합니다. 했으면 얼마나 했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옛날 부처님이나 지금의 부처님이나 또 한 불국사 부처님이나 팔공산 갖바위 부처님이나 총지중 부처님이나 같은 부처님입니다. 다만 지금은 물질만능시대라 마음이 물질에 가있고 '마음이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안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있기 때문에 화를 당하고, 사기꾼 때문에 사기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거기에 가있기 때문입니다. 불법을 가까이 하면 복이 오고 줄

이달의 설법문안

원효스님은 "계행에 의지하여 세상의 시끄러움을 모두 털어버리고 천상으로 올라간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꼭 천당을 간다는 말이 아니라 온갖 시시비비와 희노애락을 다 초월하여 깨달음의 자리에 가 있다는 뜻으로 새겨야 합니다. 이를 곧 승공천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곧 불법은 공문이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사찰의 일주

문이 때문없이 텅 비어 있듯이 텅 빈 문, 공해탈문으로 불법을 표현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들어 올 수 있고 나갈

계의 사다리를 통해 해탈의 경지에 이름

수 있도록 닫는 일도 여는 일도 없이 늘 비어 있는 공문이 불법을 상징하듯이 텅 빈 하늘에 올라가는 것은 누구든지 수행한 하면 결집없는

세계로 들어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법임을 다 떨쳐버리고 생사대사를 요달한 대장부로서의 무

애지, 일체 결집이 없는 무애도인의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의 세계에 들어선다는 것을 천상으로 올라간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지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계(戒)라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아울러 계를 파한 수행자가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복전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말

합니다. 자기 스스로 사다리를 부러뜨려서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허물만 가득한 이가 다른 사람을 구제한다

계행은 최상의 사다리

생활속의 밀교

호흡을 동반한 진언염송법

▶깊은 숨을 반복하여 안정된 호흡을 행하면 집중력이 높아지고 긴장이 풀린다고 한다. 분노를 속으로 삭이면 병이 되고 사망률이 높아진다고 한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즐거운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다. 즐겁게 서로 이해하며 평온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호흡을 가질 수 있는 길이다. 결국 마음이 문제이다.

수행은 이러한 마음을 항상 가질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편안한 호흡을 하면 몸도 마음도 편안해진다. 바른 호흡을 위해서는 허리를 반듯이 바로 세우는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망상(妄想)이 들면 호흡을 다시 조절하는 데 집중한다. 염송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호흡을 조절하여 정신집중과 마음의 안정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우리는 진정한 삼십수행법 행하고 있는가? 염송 횟수에만 너무 집착해 있지 않나 반성해본다. 진언염송은 진언 뿐만 아니라 호흡을 동반하고 명상

진언염송은 호흡을 동반한 단전호흡의 명상관법과 병행으로 삼매에 이르게 함

관법이 병행되어야 한다. 사람의 기운은 호흡과 맥을 같이한다. 호흡이 동반되지 않는 몸의 움직임은 건강한 기운에 역행하는 일이다. 창종 당시 모든 스승님과 교도들은 아주 큰소리로 진언염송을 했다고 한다. 마치 소가 우는 듯한 음성으로 동네가 시끄러울 정도로 염송을 했다고 한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지난 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4가지 염송법 가운데 고성염송(高聲念誦)에 대한 내용이다. 큰 소리로 염송을 하게 되면 그 진언소리로서 죄를 멸하게 된다고 하였다. 염송은 큰소리로 하게 되면 잡념이 사라져 자연히 그 소리에 빨려 들어가 염송삼매에 들게 되고, 또 소리를 발하므로써(發聲) 단전호흡이 절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 당시의 어른들이 어찌 호흡을 알고서 염송을 했을 것이며, 또 어찌 염송법을 알고서 단전호흡의 수행을 했을 것일까, 분명한 것은 큰소리로 염송하므로써 오장육부라 튼튼해졌을 것이며 기운이 활발해졌을 것이고, 또 절로 심리적 안정을 가져와 정신생활에서 공덕성취의 빛이 자연 발하여졌으리라고 생각한다. 이를 입증할 방법은 없다. 그러나 아주 터무니 없는 말이라 할 수는 없다. 정신세계는 쉽게 입증하거나 단정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매일 칭찬의 소리를 들려준 꽃은 여러 날 동안 화사하게 피어있었지만 잔소리와 악담을 들려준 꽃은 금방 말라 죽었다는 얘기는 진언염송을 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소리의 파장은 진동을 통해 어떤 대상에 전해지게 된다. 소리와 진동이 생물체

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그런 점에서 진언염송을 주로 하는 우리 종단은 고성염송을 통한 진언염송법을 빨리 정립·체계화하여야 할 것 같다.

그 당시 큰 소리로 염송을 하다보니 단전호흡은 절로 되었으리라 생각되며, 염송삼매를 쉬이 경험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모든 면에서 기운이 순조롭고 살아있는 진언염송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소리를 내어서 염송을 하고 있지 않다. 아니 소리내어 염송할 수가 없다. 옆사람에게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의 염송법에는 소리를 내지 못하므로 호흡이 배제되어 있다. 호흡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몸에 무리만 올 뿐이고, 삼매에 들 수가 없다.

고성(高聲)에는 열가지 공덕이 있다고 했다. 능히 수련을 속고 천마(天魔)가 놀라 도망가게 하며, 시방세계로 염송소리가 퍼지게 하고, 지옥세계의 고통을 없애고 바깥소리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생각과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용맹정진하게 하며, 모든 부처님이 환희하고, 삼매(三昧)가 현전(現前)하게 되며, 정토(淨土)에 왕생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와같이 큰 소리는 잡념이 일어나지 않아 집중에 들어가 쉽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호흡조절이 자연스레 이루어지게 된다. 수행에 있어서 호흡은 절대 필요하다. 『열반경』에 이르기를, "늘 숨을 고르는 수행을 하라. 숨을 고르는 수행을 하는 자는 죽음에 다달았을 때 자기가 쉬는 마지막 숨을 맑은 정신으로 보고 가지 맑지 않은 정신으로 보고 가는 일은 없다. 마지막 숨을 맑은 정신으로 보고 가는 자의 사후는 선하다."고 하였다. 바른 호흡을 강조한 말이다.

▶따라서 바른 호흡을 위해서 우리는 예전과 같이 고성(高聲)으로 하는 염송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른다. 장기적으로 고성염송을 행할 수 있는 염송기도전문도량이 필요한 시점이다. 당장은 어렵다고 보여진다. 그래서 우선 집에서 아침이나 저녁 정승때에 각자 연습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큰소리로 염송을 못하는 대신에 묵묵(默誦)을 하면서 속으로 진언 한 자 한 자에 박자를 맞춰 깊은 호흡을 행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몸'을 마음 속으로 크게 부르면서 숨을 길게 내쉬고, 반대로 '마니반메'를 하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흠'을 내뿜으며 숨을 길게 내쉬어보자. 또 다른 방법으로 숨을 길게 들이마시면서 '음', 길게 천천히 내쉬면서 '마', 다시 '들이마시면서' '나', 내뿜으면서 '반', 마시면서 '메', 내뿜으면서 '흠'을 행해보자. 또 '음'하며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가 '마니반메'를 할 때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마지막에 '흠'을 힘껏 내뿜으며 숨을 내쉬어도 좋을 듯하다. 이제는 호흡을 동반한 진언염송이 되어야 한다. 나아가서 평상시에도 늘 호흡과 진언염송을 지속되어야 한다. **〔법경/연구원 겸 사무국장〕**

불교 충지중 사회복지 재단은 부처님의 자비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설립취지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사회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각종 사회복지 사업을 펼치고 이를 통해 소외된 계층과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의 공덕'을 실천하여 안정된 사회와 가정의 이룰 수 있도록 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용

- 노년복지사업
 - 역삼 노년복지센터 운영
 - 주간보호 사업
 - 만성질환과 기능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낮동안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양가족과 노인들이 경제, 신체,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
- 재가복지 사업
 - 지역의 생활보호 및 저소득 노인을 발굴하고 경제, 정서적 서비스를 통해 생활에 도움을 주는 사업
- 은빛축제 :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마당
-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 55세 이상 고령자 취업알선

지역복지사업

- 지역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 지역내 소년·소녀 가장 후원 결연사업
- 지역내 독거 노인 후원 결연사업
- 생활보호 대상자 후원 사업

자원봉사 및 후원회 사업

- 자원봉사자 상담 및 교육
- 자원봉사 지원 및 운영
- 후원자 개발 및 관리
- 자원봉사 교실 운영

청소년복지사업

- 건강한 청소년 육성사업
- 청소년 문제 연구 및 상담사업
- 청소년 문화교실 운영
- 청소년 건강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 캠프

노인 휴양시설 건립 추진

- 아름다운 노후생활
- 안정되고 체계적인 노후보장
- 남궁당 건립 추진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충지중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람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의 사회복지 사업에 소중한 기여가 됩니다.

회 원

일반회원 - 월 5천원(17주) 이상 친조회원 - 일일금액 후원
 단체회원 - 단체명의로 월 5만원 이상 특별회원 - 50만원 이상 후원

후원금 납입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지로 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 지로번호 : 7668610
 -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 예금주 : 불교충지중사회복지재단

기획연재 양부만다라 ⑮

태장제만다라 '변지원(遍知院)'의 칠구지불모(七俱胝佛母)· 대안락불공진실보살(大安樂不空眞實菩薩)

지난 호에서 변지원(遍知院)의 존상(尊像) 가운데 중앙의 일체여래지인(一切如來智印)의 좌우에 나열해 있는 불안불모(佛眼佛母)와 대용맹보살(大勇猛菩薩)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이번 호에서 변지원의 다섯, 여섯번째의 존상인 칠구지불모(七俱胝佛母)와 대안락불공진실보살(大安樂不空眞實菩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칠구지불모(七俱胝佛母)는 준제관음보살의 다른 이름이다. 준제관음보살은 관세음보살의 변화신(變化身)으로 육관음(六觀音)의 한 분이다. 밀교에서 준제보살은 불모(佛母)로 칭송되는 보살로서 불부(佛部)의 중심존(中心尊)으로 모셔지고 있다. 준제는 '청정'의 뜻으로, 곧 심성(心性)의 청정함을 찬탄한 이름이다. 그래서 밀교에서는 그 덕을 찬양하여 칠구지불모(七俱胝佛母)라 한다. 칠구지는 7억이라는 뜻이므로 칠구지불모는 칠억 부처님의 어머니로서 부처님의 광대한 덕을 의미한다. 곧 관음보살이 광대한 자비공덕으로써 7억의 부처님을 출생(出生)시켰다 하여 칠구지 불모(佛母)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칠구지불모는 중생을 무상보리(無上菩提)로 인도하는 보살로 상징된다.



칠구지불모보살



대안락불공진실보살

이 칠구지불모보살의 밀호(密號)는 최승금강(最勝金剛)이며 삼매야행은 설법인(說法印)이다. 존형(尊形)은 백황색(白黃色)으로 열 여덟 개의 팔을 지니고 있고 붉은 색 연꽃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이다. 열 여덟 개의 팔에는 백색빛의 소리와 같은 형태의 팔자를 차고 있고 각 손에는 보검(寶劍)·장·도끼·염주·보병(寶瓶)·연꽃·

樂不空)이란 세속적인 생(生)과 사(死)를 완전히 뛰어 넘은 깨달음의 경지로써 최상의 안락을 뜻한다. 그래서 대안락금강살타(大安樂金剛薩埵)라 한다.

대안락불공진실보살은 보현연명보살(普賢延命菩薩)이라고도 일컬어지며, 증익(增益)·연명(延命)의 삼매에 들어있는 모습을 특별히 존격화(尊格化)한 것이다.

보현이란 원래가 모든 것에 대하여 현명하고 더욱이 선(善)한 것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내실(內實)에는 행복(幸福)·장수(長壽) 등의 원(願)이 포함되어 있다. 이 보살은 스무개의 팔을 지니고 있는데, 금강계의 십육대보살(十六大菩薩)과 사십보살(四攝菩薩)의 지물(持物)을 지니고 있다. 오른손에 오고저(五鉞)·오고구(五鉤)·전(箭)·탄지(彈指)·삼판보주(三瓣寶珠)·일륜(日輪)·여의륜(如意輪)·쌍립삼고(雙立三鈷)·금강구(金剛鉤)·금강색(金剛索)을 들고, 왼손에 연화(蓮華)·이검(利劍)·팔쪽검(八幅劍)·설중삼고저(舌中三鈷)·십자갈마(十字羯磨)·갑주삼고저(甲冑三鈷)·쌍립이아(雙立利牙)·금강권(金剛拳)·금강쇄·금강경(金剛鈴)을 들고 있다. 이 지물들은 금강계(金剛界)의 상징물로서 태장제만다라에 이미 그려져 있다는 것이 특이한 부분이다.

위의 여러 지물(持物)은 수행자가 바라는 바를 달성하기 위하여 십육대보살의 덕(德)을 몸에 지니고, 사십보살(四攝菩薩)의 실천을 함께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 혹은 그 정도의 자비심(慈悲心)을 구족하고 있지 않으면 중생들의 고뇌에 관계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 대안락불공진실보살을 본존으로 하여 치병(治病)과 안산(安産) 등의 기도가 한 때 일본에서는 많이 유행하였다고 한다.

칠구지불모는 중생을 무상보리로 인도하는 보살 대안락불공은 해탈의 안락에 이르게 하는 보살

금강저(金剛杵) 등 다양한 지물(持物)이 들려 있다. 바로 중생의 구세자(救世者)로서 관세음보살의 화신(化身)임을 상징하고 있다. 이 보살의 종진언종자는 '부(𑖀) 인데, buddha(佛)의 머릿글자에서 따온 글자이다. 진언은 '나모 깃다남 삼막삼 부다 코치남 다야타 음 자레 주레 준제 사바하'이다. 우리 총지종에서 음마니반 메혹과 함께 지송하고 있는 바로 그 준제진언이다. 그 뜻은 '칠구지의 정등각자에게 귀명합니다. 음! 두 발로 걷는 자여! 머리털이 있는 자여! 준제! 사바하!'이다. 그 다음으로 칠구지불모의 반대편에 있는 보살로 대안락불공진실보살(大安樂不空眞實菩薩)을 소개한다. 이 보살은 대용맹보살의 옆에 있는 보살이다. 대안락불공(大安

이 보살의 밀호(密號)는 진실금강(眞實金剛)이며, 삼매야행은 갑주삼고(甲冑三鈷)이다. 거북이 모양의 투구 위에 삼고저(三鈷)가 놓여 있는 모양이다. 존형(尊形)은 백육색(白肉色)으로 머리에 오물(五佛)의 관(冠)을 쓰고 붉은 색 연꽃 위에 앉은 모습을 취하고 있다. 결인의 모습은 연화합장(蓮華合掌) 또는 보현연명보살인(普賢延命菩薩)을 취하고 있다. 이 보살의 진언종자는 '유(𑖄) 자이며 ayus의 두번째 음(音)에서 따온 글자이다. 수명(壽命)을 뜻한다. 진언은 '음 바즈라 유세 사바하'이며 '음! 금강과 같은 수명을 지닌 자여! 사바하'이다. <자료정리: 법장원>

아제 아제 바라아제

기도의 내용을 조금만 바꾸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아이들과 함께 연등축제에 갔다. 갖가지 등불, 많은 사람들의 즐거운 울림, 웅장한 장엄물... 정말 너무 멋졌다. 화려한 행렬 가운데, 규모는 작지만 미안파나 태국 등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의 모습도 있었다. 삶이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오늘 만큼은 그들도 신신서 연신 손을 흔들고 환하게 웃었다. 정 깊은 우리나라 사람들! 약속이나 한 듯 격려의 박수를 힘껏 쳐주었다. 잠시 후 입정거리가 끊일 새 없는 작은아이가 솟사당을 사달라고 졸라, 형과 하나씩 사주고 자리를 잡고 구경을 하는데, 옆에 있는 어린 여자 아이가 말뚝거리는 눈으로 솟사당을 쳐다본다. 어느덧 큰아이 작은아이 할 것 없이 그 여자아이와 함께 솟사당을 나누어 먹는다. 그 모습을 보니, 약한 사람을 위해 힘찬 격려의 박수를 쳐주는 것, 작지만 함께 나누는 것, 그리고 그 사실 자체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런 것이 부처님 오신 날을 기

라, 몇몇 사람은 이웃을 위한 등을 달기도 하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을 하거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하루를 보내는 불자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불자들은 개개인의 부덕을 크게 비는 뜻깊은 날로, 대부분의 사찰은 형식적 의례의 날로 하루를 보내는 경우에 비하면 참으로 미비하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기복신앙이라는 토대위에서 성장해 왔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기복신앙은 가장 수준이 낮지만 가장 뿌리깊은 종교행위이다. 한때 우리 불교계에서도 기복불교를 극복하지는 논쟁이 뜨거웠던 적이 있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자면 탈 세속을 지향하는 불교의 근본취지와 기복신앙은 타협하기 힘들만큼 차이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이 단절되지 않고 이어져올 수 있었던 것은 기복신앙의 형태로 제공되는 재화의 공급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역사적인 아이러니가 동시에 공존하고

약한 사람을 위해 힘찬 격려의 박수를 쳐주는 삶 모두가 평화의 길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자세

리는 의미가 아닐까 하고 잠시 생각해 보았다. 다음날 노숙인 쉼터에서 일하는 친구에게서 메일이 한 통 왔다. 봉축연등축제 때 노숙인들이 참여하여 장터를 개설하고 수익금을 노숙인복지를 위하여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봉축위에게 참가를 신청했는데, 수락되지 않았으며, 그것에 대한 서문함이 편지에 배어있었다. 짐작해 보는데 봉축위에서는 노숙인이라는 사실이 부담스러웠던 모양이다. 봉축 관계자들의 염려도 이해할 수 있다. 시민들과 불자를 위한 축제가 혹여라도 몇몇 사람들에게 의해 망쳐질까 두렵기도 했을 것이다. 한편 우리들은 어떠한가? 만일 행사장에 웅기 거북스러운 사람이 오면, 지레 겁먹고 배척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품심이 생각해 보니, 나 스스로도 부처님 오신날의 의미를 제대로 새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래도 요즘은 예전과는 달

었다. 그렇다면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복을 비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내용이다. 자기와 가족의 안녕과 세속적인 욕망의 성취만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불보살님들의 기도를 갈구할 것인가? 아니면 그 범위를 좀더 넓혀서 자신이 담고 있는 공간의 다른 생명들에게도 관심과 배려를 보낼 것인가? 다른 생명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방식은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형태로 실천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방식을 나열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겠지만 예를 들어, 초파일 기도만이라도 나와 이웃과 못 생명, 모두가 평화의 길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함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리라 하고 서원해 보는 것도 좋을 듯 싶다. <김선미/인드림생명공동체총무국장>

이달의 명상

자기 한 몸의 쾌락을 능히 버리는 사람, 행하기 어려운 것을 능히 행하는 사람은 성인과 같이 공경받고 부처님과 같은 존경을 받습니다. 선행을 위해 어렵고 힘든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의 우러를을 받게 되는 것인니다. 이들은 버림에 매달려서 살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손을 탁 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자제하는 능력에서 솟아납니다. 자기 스스로를 자제할 수 있는 힘은 꾸준한 정진과 수행을 통해 걸러지는 것입니다. 만일 자기가 자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모

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뛰어난 도덕의 힘을 갖는 것도 이 자제력 때문이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도 이 자제의 능력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능력은 또한 모든 것을 내 것, 네 것 하며 잡아당기는 애착을 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알고 놓아버리는 행을 실천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 내가 가져야겠다는 생각, 내가 이루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가득찬 상태에서는 아무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안위나 행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수행인은 어렵고 힘든 일을 두려워해서는 안됩니다. 바로 이러한 일이 성인을 만드는 길임을 명심하고 벼랑끝에서 손을 놓아버릴 줄 아는 행을 가까이 받아들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성인과 부처님의 모습이 눈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편집자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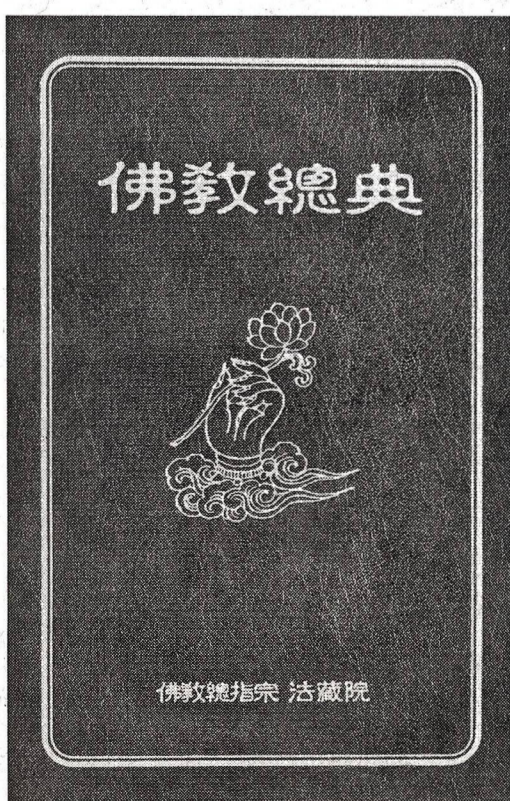
불교경전의 정화(精華)! 『불교총전』

팔만대장경의 주옥같은 말씀을 이 한 권에...

팔만대장경 가운데에서도 가장 빛나는 부처님 말씀을 이 한 권에 가려 뽑았습니다. 『불교총전』한 권으로 불교의 근본교리와 실천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교법(教法)/수도(修道)/업감연기(業感緣起)/ 자기에 대한 덕의(德義)/타인에 대한 덕의(德義)/포교와 구경해탈 및 열반



국판 고급양장 금박/700페이지/정가 35,000원 도서출판 법장원 Tel : (02)552-1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2

총지논단

실천 공부 ①

본 글은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 서각간행을 위해 친히 쓰셨던 원고의 일부입니다. 원정 대성사께서 창종의 뜻을 구국도생(救國度生)에 두셨던 만큼 구국절절 일체중생제도의 대비원(大悲願)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한국밀교의 중흥을 창종 정신으로 삼았던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는 정통밀교종단의 교상과 사상의 체계와 정립에 전념하셨습니다.

특히, 한때 진각종단의 총인직을 맡으셨을 때는 모든 교리체계와 교전편찬을 손수 완성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면면은 원정 대성사의 유고(遺稿)에서 엿보게 됩니다. '실인진리' '진각' 등의 언급은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총지종과 진각종의 교전을 아우르고 있는 종조 원정 대성사의 가르침에서 대성사의 숨결을 다시 한번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Q: 꼭 같은 것은 무슨 이유인가?
A: 개인의 심장에 별과 같은 양심을 개별적 나누어져서 가졌다면 동서 세계 풍속 사상이 다른 데 따라 점점 변해져서 달라졌을 것인데, 전기와 같이 삼계에 찬 각성 하나 가운데 각각 두게 되었으므로 참되고 변함이 없는 본체와 같이 다르지 않습니다.

Q: 그러면 그 크기는 얼마나 되는가요?
A: 너와 나의 공간에도 연합되어 있고 나라와 나라사람 공간에도 연합되어 있으며 동서 세계 공간에도 연합되어 있고 삼계 곧 타방 세계 공간에도 연합되어 있어 그 큰 것을 말하자면 절대적 큰 것이 됩니다.

Q: 사람의 양심은 같습니까?
A: 너 나 할 것없이 양심은 같습니다.

심인공부

은혜는 평생으로 잊지 말고 수원(水源)은 일사라도 두지 말라.

Q: 어떻게 하여야 마음이 고쳐집니까?
A: 본심진언 음마니반메움을 항상 염송하여 지혜로써 용맹과 회사를 세우며 어려서어 성내고 탐하는 마음을 없애는 데 마음이 고쳐지느니라.



음마니반메움을 항상 염송하여 지혜로써 성내고 탐하는 마음을 없앴

Q: 조상의 기제(忌祭)와 묘사(墓祀)는 무슨 의미인가?
A: 살아계신 부모에게 효순하는 근본을 굳게 심으려고 행사를 합니다.

Q: 교와 스승을 비방하면 그 결과가 어떠한가?
A: 살림은 무너지고 부부는 폐약하고 자손은 유리이산(遊離離散) 되느니라.

Q: 부처님께 불공을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A: 중생의 마음 닦고 밝히는 법을 세우려고 불공드립니다.

Q: 나라의 충성은 무슨 의미인가?
A: 각기 직분과 자율을 지키는 것이 국민의 충성이 됩니다.

Q: 자율은 어떻게 하면 서게 되는가?
A: 교를 믿으므로써 진리를 깨쳐 선악의 공정한 심법(心法)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 스스로 세워 지느니라.

Q: 부모에게 효순은 무엇인가?
A: 부모의 말씀과 뜻을 순종하고 또 부모에게 복업(福業) 짓는 것이 효순입니다.

Q: 기정에 화목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A: 내 잘못을 알아서 하루 오십번

가까이 심인보살님께 참회하고 또 가정에서 아나미 먼저 깨닫고 참회하는 데 화목이 됩니다.

같은 깨닫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게 되느니라.

국가(國家)

Q: 어리석은 것은 어떤 것인가?
A: 성인의 말씀 이외의 것을 믿고 복을 구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니라.

Q: 회사공덕은 어떠한가?
A: 현재에는 곤란 재앙 우환 질병을 미리 없애어 소멸하고 미래에는 부귀하고 복있는 사람이 되느니라.

Q: 내 허물을 어떻게 하여야 쉽게 알 수 있는가?
A: 남이 내 허물을 말하거든 기꺼이 듣고 또 부자(父子)나 부부(夫婦)나 형제(兄弟) 친구(親舊)에게 묻는 것이 속이는 것이니라.

Q: 귀신은 어떠한 것인가?
A: 마음이 흠어지면 귀신되고 마음이 모아지면 정신되니 귀신이 다른 곳에 있지 않느니라. 그 근본이 나에게 있으니 나무와 돌과 물과 불 같은 곳에 빌지 말고 나의 심인(心印)에 참회하고 서원하여 보라. 그 결과 백천배가 되어서 기히 헤아릴 수 없느니라.

왕자 왕손이 자연히 임금이 되는 것이 정해져 있을 때는 임금이 왕정을 못한다고 스스로 위(位)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성주가 아닌 이상에는 반역해서 쳐버리고 옥새를 빼앗기 전에는 왕의 위를 움직이지 못하므로 이러한 주의가 서는 시대에는 여진 신하를 구해서 정사(政事)를 맡기는 것 밖에 더 좋은 법이 없는 고로 일찍 천자나 제왕의 정사에 여진 신하를 구하는 왕도정치법이 되었던 것이요, 민주국가에서는 임금이 정해 있지 않고 4년이나 혹은 짧은 기간으로 헌법을 정하여 놓고 국민투표로 영도자를 선거해서 행정권을 맡기고 기한이 차면 좋거나 나쁘거나 자동적으로 물러나게 되고 새로 국민 가운데 다시 영도자를 선거해서 행정적 정치를 맡기는 것밖에 더 좋은 법이 없으므로 심인(心印)에 맹세하고 법계 진각님께 발원 공도를 깨닫지 못하고 실천 없는 사람에게 영도를 맡기거나 지혜가 어두운 사람에게 대사(大事)를 맡기거나 물심이원으로 성공함이 없는 역량적인 사람에게 중책을 맡기게 되면 화(禍)를 이루게 되니 국가흥망과 민족안위를 좌우하는 민의원(民議員)이나 참의원(參議員)이나 대통령이나 지방의 원 선거에 주권을 가진 우리 국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公道(公道)를 행하고 지혜가 밝아서 묘력(妙力) 많은 이에게 투표하여야 하느니라.

성스러운 영도자를 선거해서 책임적 정치를 맡기는 것밖에 더 좋은 법이 없으므로 심인(心印)에 맹세하고 법계 진각님께 발원 공도를 깨닫지 못하고 실천 없는 사람에게 영도를 맡기거나 지혜가 어두운 사람에게 대사(大事)를 맡기거나 물심이원으로 성공함이 없는 역량적인 사람에게 중책을 맡기게 되면 화(禍)를 이루게 되니 국가흥망과 민족안위를 좌우하는 민의원(民議員)이나 참의원(參議員)이나 대통령이나 지방의 원 선거에 주권을 가진 우리 국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公道(公道)를 행하고 지혜가 밝아서 묘력(妙力) 많은 이에게 투표하여야 하느니라.

(자료제공: 총학연구실)

조선화원장의 총지 등의 보감

임신중의 한약복용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임신을 하게되면 감기약이나 소화제 등의 약은 물론이고 질병이 생겨도 쉽게 약을 복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생각에 한약도 임신중에는 복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임신초기나 중기 혹은 순조로운 출산을 돕기 위해서 적절한 시기에 한약을 복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산모와 태아 모두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옛날 왕비나 사대부집 부인이 임신을 했을 때 약으로 임신유지와 출산을 도왔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임신 중에 보약을 먹게되면 산모뿐 아니라 태아의 생장발육에도 도움을 주게됩니다.

출산시 태아가 너무 커지는 경우

태아가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것은 대개 스트레스로 허기증이 생겨 식욕을 주체 못해 과식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 유산경력이 있는 사람이 지나치게 몸을 조심

방하며 자궁을 틈틈히 하여 적당한 운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한방에서는 임신부가 임신 중 활동을 하지 않아 태아가 커져서 난산의 우려가 있을 때 약을 써서 순산을 도와주게 됩니다.

입덧을 할 때

평소 허약하고 신경이 예민한 임신부는 입덧으로 고생하며 심지어 입덧 때문에

못하게 되므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한의학적으로 이 증상은 위장이 약하고 밥이 생겨 구역할, 치열미 등의 증상이 생기는 것이니 위를 튼튼하게 하면서 담을 치료하는 한약재를 처방합니다.

문적인 한방치료를 전제적인 기운을 상승시켜주면서 속이나 익모초 등의 약재로 자궁을 따뜻하게 하여 하혈을 멈추게 하고 안태를 지켜 근본적으로 자궁을 튼튼하게 합니다.

순산을 하기 위해서

골반의 크기에 문제가 없다면 대부분은 기운이 없어서 난산을 합니다. 이때에는 일반적인 보약으로 산모의 원기를 도와주어야 하며 녹용 같은 약으로 원기를 특별히 많이 도와 무통분만으로 순산을 유도해야 합니다. 임신말기에 임신중독증으로 혈압이 오르고 부종이 생기며 소변으로 영양이 새어 나갈 때도 매우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방치료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美 한의원 원장 ☎(02)545-0072

임신중에 한약을 복용하면 산모와 태아 건강에 도움 녹용 같은 약으로 원기 도와 무통분만으로 순산 유도

하다 운동부족으로 태아가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한약은 허기증을 고쳐 과식을 예

에 유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신부가 음식 냄새를 싫어하거나 잘 먹지 못하는 것은 태아에게 균형 된 영양을 제공하지

유산 할 우려가 있습니다. 요즘은 대다수 여성의 자궁이 약해져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유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전



여성美 한의원

- 여성병(부인과) 클리닉
- 월경병: 월경불순, 생리통, 무월경, 월경곤란증, 갱년기 장애, 과소-과다월경 등...
- 생식기병: 자궁근종, 질염, 냉증, 대하증, 봉루증, 자궁선근증, 요실금...
- 임신병: 불임, 임신오저(입덧), 임신중독증 등...
- 산후병: 산후풍, 산후비만, 유산후유증 등...
* 기능성좌약 요법(자경단, 요실단 등)으로 탁월한 치료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비만 클리닉
- 여성: 자궁 다이어트 - 남성: 복부 다이어트
가족 클리닉 - 보양, 수험생 등
* 환자들의 요청으로 2003년 부터 남편 및 자녀들을 위한 클리닉을 개설하였습니다.
진료시간
평○○일: 오전 9시30분~오후 6시30분
주○○말: 오전 9시30분~오후 4시
점심시간: 오후 1시~오후 2시



풍경소리

달 밤

양관선사의 오두막에
밤손님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었습니다.
"먼길을 왔는데 그냥 가셔야 되겠는가?"
웃을 벗어줄테니 가져가시게.
밤손님은 웃을 받아들고
뒤도 보지 않고 뛰었습니다.
달빛이 뜨락에 눈부셨습니다.
벌거숭이가 된 선사는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아름다운 저 달빛까지도 줄 수 있었더라면"
- 맹린자/수필가

막자를 기다리는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그들은 무척이나 괴로워 보였습니
다.
"그때 일만 생각하면 밤에 잠이 안와"
"난 앞날만 생각하면 아득해, 도무지 희망이 없
어"
탄식하던 그들은 버스가 도착했지만
타지 않았습니다.
근처 포장마차로 들어가는
그들의 어깨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과거의 일로
오지 않은 미래의 일로
당신의 '지금'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 오세경/방송작가

가슴을 적시는 샘물

무성한 숲만이 온갖 새들을
다 품을 수 있습니다.
굳게 가슴을 닫고 사는 사람들.
그들은 남에게 사랑을
줄 수도 받을 수도 없습니다.
파스함이 없는 가슴을
한 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끝없는 사막을 걸어가는
것처럼 목마르고 힘겨울 것입니다.
작은 실개천 하나가 넓은 초원을
두루 적시듯, 지치고 힘든 나그네에게
한 모금이 샘물은 곧 목숨의 근원이 됩니다.
파스한 마음은 세상의 가슴을 적시는 샘물입니다.
- 김경희/시인

버림

당신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봉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때 몸이 고달프고
드러나는 주위의 것들로부터 마음이 울적해도
나라고 하는 것들을 버린 행동이
가슴 뿌듯한 무엇인가를
당신에게 선물하지 않았나요
알 수 없는 힘을 주지는 않았나요

그러한 기쁨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존재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자신의 욕망이라고 하는 환영으로부터
해어 나오지 못하는 한
당신의 고통은 더할 뿐입니다.
- 김영애/시인

지금

밤 늦은 시간

나도 한마디

마음으로 쓰는 편지

가정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시는 부모님과 토끼같은 지식
들의 재능과 성장하는 것을 보며 자신의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고 아픔과 고통을 대신해 주고 싶
은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러한 부모님의 따뜻한 정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고,
오히려 부모님들에게 짜증을 내고, '왜 나를 낳았
냐'며 불평만 하는 경우가 많아 부모님들을 속상하
게 하는 사례도 많고,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어 병환
으로 고생하실 때 오히려 귀찮게 생각하고 버리는
경우가 있어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옛말에 '부모의 은혜는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다.'는 말이 있지만 산업이 발전하고 핵가족화 되
어 가면서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자녀들을 낳기 전에는 부모님의 소중함을 몰랐지
만 막상 자녀들을 낳고 기르는 동안 '나의 부모님도
나와 같이 아낌없는 사랑으로 나를 키워 주셨을 것
이다.' 라고 생각하며 오월 서너하늘에 검붉게 물들
어 가는 저녁노을을 보며 왠지 그리움에 사무쳐 부
모님께 편지를 써 보지만 그 편지는 머나먼 창공에
소리없이 흘러가는 페이리 뿐 당신들은 이미 속세

의 연을 다하신 뒤였다.
우리들은 항상 모든 것을 잃고 난 뒤에 후회를
하며 참회를 하지만 이미 떠나버린 뒤의 참회는 소
용이 없을 것이다. 항상 부모님을 비롯한 모든 사람
들의 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간직하고 하루라도 살
아 계셨을 때 그 은혜를 갚아야 할 것이다. 두 번
다시 마음으로만 쓰는 편지가 되지 않기 위해....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김해 자)

나도 한마디는 총지종보 독자의 공간입니다.
책을 읽고 느꼈던 소감이나 총지종보, 총지
종 종단에 바라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분은 총지종보사로 원고를 보내주시면 소정의
원고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총지종보사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6-2
전화 : 02)552-1080 팩스 : 02)552-1082
이메일 : kyjja@hanmail.net

월정대성사와 함께하는 VISUAL 밀교 -반야심경편 제 29화-
글.그림/정수일

아니, 왜 그러세요? 요즘 유행하는 닭다리송인데...

닭 맛 떨어지잖아요!

닭 값 공짜면 들어줄 수 있지만..

그만 들래요. 아까 하시던 말씀들이나 계속 하세요.

아직 형태가 다 갖춰지지 않은 명색은 태내에서 "안,이,비,설,신,의"의 육근이 성장하게 된다.

육입(六入)이란 육근(안,이,비,설,신,의)이 갖춰진 상태를 말하는데 즉 태내의 "눈,코,귀,혀,몸과 의식"이 갖춰진 어린아이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히히히! 이때다. 다 먹어 버리자.

그 다음 촉(觸)이란, 어머니의 몸에서 출산된 아이는 외부세상과의 접촉을 하게 되는데 이를 "촉"이라 합니다.

히히히. 닭으로 치면 이렇게 되는군요?

세상과 접촉을 시작하면서 병아리는...?

그 다음 수(受)란, 어린아이는 출산할 때 무서운 고통을 느끼고 자리면서 포근히 감싸주며 보호해 주는 부모의 사랑을 느끼게 되지요. 즉 고통과 쾌락을 받아 느끼게 됨을 말합니다.

정리하자면, 과거세의 두 가지 원인인 "무명"과 "행"으로 인하여 현세의 다섯 가지 결과인 "식,명색,육입,촉,수"가 생깁니다.

잉..간 줄 알았더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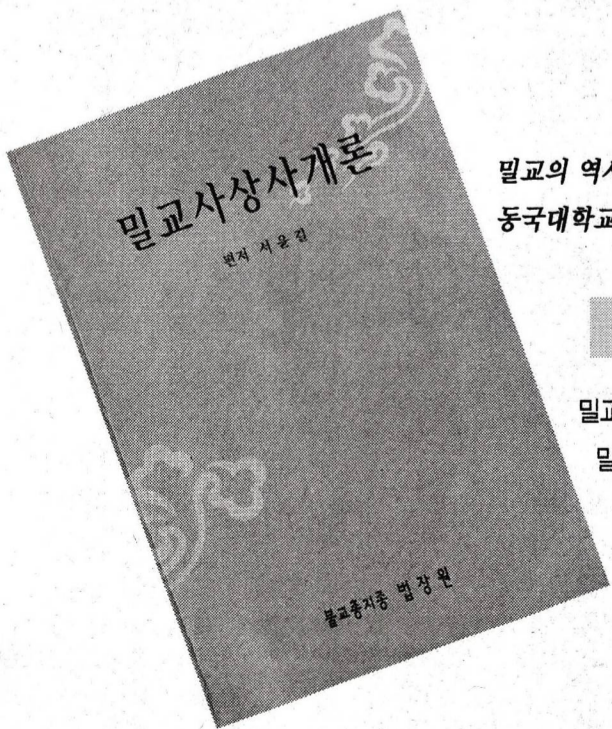
이처럼 과거세의 원인과 현세의 결과를 반복하며 중생의 삶이란

뭐 별거 있겠습니까? 삶은 계란이며 삶은 행주며 삶은 빨래일죠.

계란이 구르는 것처럼 윤회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끄응.. 그..그런군요.

『밀교사상사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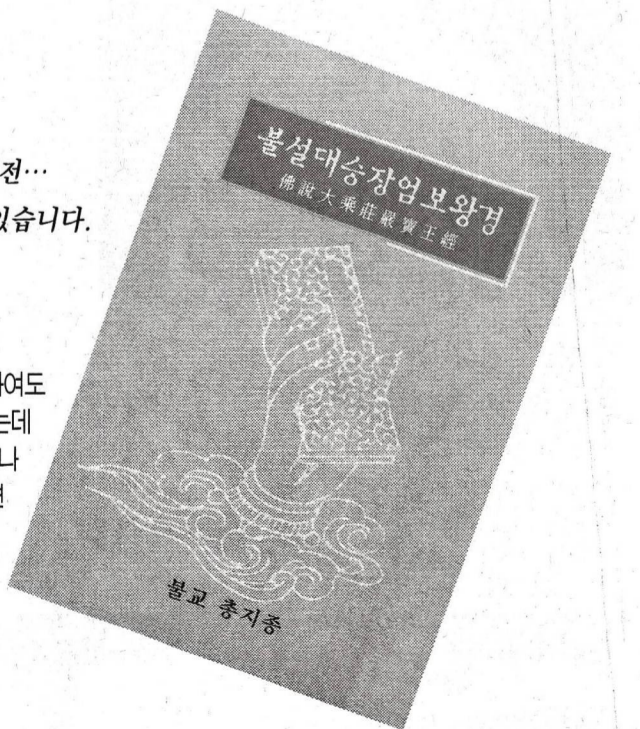
밀교의 역사와 교리에 대한 국내 최초의 본격적 개론서!!!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서운길 교수 외 7명의 밀교학자가 공동 집필...

주요내용

밀교란 무엇인가/밀교의 기원과 형성/밀교의 성립과 전개/
밀교의 사상과 그 교학적 배경/밀교의 수행과 실천/한국의 밀교/
부록: 한국현대밀교와 월정대성사

국판/437페이지/정가 15,000원

『불설대승장엄보왕경』
(佛說大乘莊嚴寶王經)



육자대명다라니 《옴나미반메흠》의 유래와 공덕을 설한 경전...
이 경을 지니기만 하여도 무량한 복덕과 안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정들이 오직 이 경의 이름만 생각하여도
이러한 이익과 안락을 얻는데
만약 누군가 이 경을 듣고 베껴쓰거나 수지하거나
독송하거나 공양하고 공경하면
그 사람은 항상 안락을 얻을 것이니라."
---본문 중에서 ----

변형 국판/130페이지/정가 7,000원

도서출판 법장원

Tel:(02)552-1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2

조계종 신도회 출범

신도회 육성지원등 독립체제

지난 7일 조계사 앞마당에서 가진 신도회 통합대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2천여명이 참석하여 조계종 전국 신도회와 중앙 신도회가 역사적인 통합의 길을 열고 "조계종신도회"로 새롭게 출범했다.

이날은 통합대의원총회 결과보고, 인사발, 통합선언문, 통합신도회 사업소개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새롭게 도약을 꿈꾸고 있는 신도회가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신도회는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국가와 사회에 희망할 수 있는 사회적 실천적 행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신도회 초대 회장인 백창기씨는 인사말을 통해 "신도회 통합은 한국불교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아주 뜻깊은 일이며, 이번 신도회 통합을 계기로 우리 스스로 실행 자세를



집중해 자신의 행으로 참된 불자가 되도록 노력하고 신도회의 발전을 위해 남을 먼저 생각하는 자리타를 실천하는 행을 할 때 신도회가 발전하기 때문에 신도들의 많은 조연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신도회는 '조계종 신도사'에 관한 중헌개정, 지역신도회와 교구 신도회의 범위와 조직위상을 골자로 하는 신도법 정비, 신도등록과 신도회 육성을 위한 지원금 지급을 건의하였다.

총지중 전통등 경연대회 입상

태장계 중대팔엽원을 형상화

총지중은 봉축위원회에서 주최하고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는 전통등 경연대회에서 팔엽원등을 출품하여 입상하였다. 총지중이 전통등 경연대회에 입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중단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번에 출품한 전통등은 태장계 만다라의 중대팔엽원을 형상화하고 팔엽원에 나오는 불보살들을 등에 색인하여 각 불보살을 화현시킴으로써 소원성취를 발원하는 것이었다.

봉축위원회에 출품된 전통등은 150여개로 불교계 각 단체들이 각자 개발한 전통등을 전시하여 전통등의 화려함과 섬세함을 자랑하였다. 총지중이 개발한 팔엽원등은 각 불보살들을 형상화하였기 때문에 화려함과 독창성이 뛰어나고 야간에 불을 밝히면 마치 등사이로 불보살들이 움직이는 것 같은 형상을 하고 있다.

이 팔엽원등은 5월 23일 연등축제 거리행진에 오색천리관 모습으로 선

을 보임으로써 행사에 참가한 불자들 과 서울 시민들의 환호성을 받았다.

한편 총지중은 내년에도 밀교적인 색채를 가미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등을 제작하여 출품하기로 하였다.

역삼청소년수련관 정식 개관

강남지역 청소년포교 육성

사단법인 파라미터청소년 협의회가 강남구청으로부터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는 역삼 청소년 수련관이 지난 21일 정식 개관했다.

역삼청소년 수련관은 강남의 8학군 주변에 위치하고 있고, 부유한 계층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불교포교의 활성화 차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또한 수련관은 2월부터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헬스, 수영, 에어로빅, 청소년 심리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수련관을 방문하고 지역 청소년 문화축제의 활성화로 청소년 포교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역삼청소년수련관은 "강남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자아형성과 취미활동, 자기개발 등을 고취시키고 이러한 프로그램 속에 참신, 단도강좌 등 불교적 색채를 자연스럽게 접목시켜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신행체험 11

부처님 공덕의 위대함 ②

눈이 왔을 때는 다리가 눈에 푹 빠지는 데도 절에 다녀와야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도 절에 다녀와야 개운했고, 몸이 아파도 절에 다녀와야 후회를 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상숙 보살 (총지사 교도)

제가 지금까지 불교신도로서 새삼 느낀 것은 "내가 총지중을 몰랐다면 이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살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밀교의 진언행자로서 지금까지 생활해왔음이 정말 다행이구나 하고 다시 한번 느끼면서 이 세상은 공짜가 없다는 것과 지은 만큼 정당한 댓가를 치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아버님의 임종이 가까웠을 때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시아버님을 찾아가고 싶어서 방문하며 시아버님의 병을 간호하고 진수성찬은 아니지만 정성을 다해 따뜻한 밥상을 차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진지를 맛있게 드시고 새벽에 운명하셨습니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생활하면서 정말 참기 힘든 경우에는 "나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다."를 외치는 순간 죽은 사람이 속상할 이유가 없음을 깨닫고 보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시아버님의 임종이 가까웠을 때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시아버님을 찾아가고 싶어서 방문하며 시아버님의 병을 간호하고 진수성찬은 아니지만 정성을 다해 따뜻한 밥상을 차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진지를 맛있게 드시고 새벽에 운명하셨습니다.

불공공덕으로 두 아들을 대학입격시킴 모든 어려움을 겪고 나니 한순간의 꿈

그래서 지금은 부처님의 진리를 만났음에 한없이 감사하고 공덕에 감사하는 마음뿐입니다. 오늘에 이르렀는지 어찌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아이들 키우면서 크고 작은 불상사가 생겼지만 그때마다 부처님의 위력을 느끼면서 인간이란 참 어리석고 미련한 중생임을 알게 되었고 힘들 때마다 부처님께서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버티면 되는 주신 부처님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의 가정을 행복하고 안락한 세상으로 만들어 주신 것에, 저를 포함하여 친척과 이웃에게 참기 힘든 고통을 주지 않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섭섭함을 느끼는 이웃 일지라도 부처님의 법을 알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부처님의 말씀대로 자신이 먼저 고개를 숙이고, 나의 잘못에 의해 남이 서운함을 느끼게 되었구나하는 참회를 통해 나의 어리석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만약 부처님이 내결에 계시지 않았다면, 부처님의 법을 만나지 않았다면 누가 나에게 이런 참회의 길,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는 길을 가르쳐 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부처님의 법을 만날 수 있었음에 너무 너무

시아버님께서 운명하실 때 저를 몰려나서 쳐다보고 있을 때 저는 시아버님께 "아빠님은 평생 동안 좋은 일을 많이 하셔서 극락에 가실 것입니다."라고 귓속말을 해드린 것이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며 지금도 부처님의 공덕에 한없는 감사와 눈물을 흘릴 뿐입니다. 부처님은 저를 자주 시험해보셨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모든 것을 인내하고 모든 것이 내 탓이요, 라고 참회하며 시험을 인고하였습니다. 시험이 지나고 나면 언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하고 모든 것이 평상심으로 돌아오곤 하였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 꿈이 생각해보니 총지중에서 수행하시는 모든 스승님과 보살님들이 저의 참된 스승님이요 은인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세월 부처님만을 생각하며 불공할 것을 부처님 전에 맹세하면서 불공에 전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세월 부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부처님의 공덕값기 위해 열심히 살겠습니다. (필)

『만화로 보는 부처님 전생이야기』

글 · 그림 정수일 · 운주사출판사

총지중보 「원장대사와 함께 하는 밀교」의 작가 정수일씨가 최근에 「만화로보는 부처님 전생이야기」를 출간하여 어린이 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만화로보는 부처님 전생이야기는 부처님의 전생이야기를 각종 동물들과 비유하여 우화스럽고 재미있게 풍자하여 어린이들이 부처님의 생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그림과 내용도 익살스럽게 표현하고 있어 최근 불교계 어린이 동화책으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정수일씨는 "부처님이 위대한 점은 그는 처음부터 정해진 신

이 아니라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 깨달음을 얻기까지 한없는 수행을 하며 모든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입니다. 그 속에서 참기 힘든 고난을 견뎌내는 끈기와 인내, 어리석음을 깨우치고 난관을 돌파하는 지혜, 힘없는 자를 위한 한량없는 자비와 희생정신, 역경을 돌파하는 용기, 착한 일을 하면 좋은 결과를 받는 다는 교훈적인 이야기와 형식이 있어 서도 간단하면서도 재미있게 엮었다."고 말하였다. 구입처: 운주사출판사 02)926-8361

태고종 종단 투명경영 원년 선포

종도가 직접 총무원 감사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최근 종도가 직접 참여하는 총무원 감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종회 차원에서 아닌 전국 교구 총무원에서 선출된 종도대표가 직접 참여하는 종단운영 감사제도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불교계 종단중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태고종은 다음달 중순쯤 개최하는 중앙종회를 시점으로 올해를 종단의 투명경영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이를 불교계는 물론 사회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배경에는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지나친 경쟁심 유발 등 인성 교육이 사라져가는 현실의 안타까움과 더불어 종단재정의 투명성을 통해 종단의 신뢰와 화합을 통해 종교적인 믿음을 고취시키고

자 하는 결단에 따른 것이다. 운산 스님은 "인성부재 등에 따른 사회의 부정적 요소들을 해소하고 사외 민족의 자랑스런 전통인 화합정신과 효사상 실천을 통해 밝고 맑은 사회를 건설하는데 불교계와 태고종단이 앞장서야 한다는 방침의 하나로 종단운영의 종도감시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어버이날 행사, 칠순팔순 잔치

지역의 정성과 따뜻한 사랑 전달



5월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총지중 사회복지 재단에서 위탁운영하는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는 지역 내 여러 기관과 연계하여 사업별 기념행사를 실시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경료친사상을 고취시켰다. 먼저 주간보호센터에서는 5월 1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어버이날 행사를 개최하여 청운유치원 어린이들이 어르신들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직접 달아드리고 다양한 재공공연의 어린이 효 한마당"을 펼쳐 어르신들에게 큰 감동을 전해주었다.

또한 5월 15일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과 공동 주최한 "역삼 어르신 칠순팔순잔치"는 가족의 부재로 혹은 경제적 곤란으로 칠순과 팔순

을 기념할 기회가 없는 재가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칠순과 팔순을 맞이한 어르신들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롯데백화점, 월마트, 교보생명, 두촌, 정방물산 등 각계각층의 후원이 잇달아 경제적 어려움과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어르신들에게 지역의 정성과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 큰 기쁨과 위안을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어버이날 기념행사와 별도로 주간보호센터는 5월 12일 비가오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모시고 대성리로 나들이를 다녀와 나들이 기회가 적은 어르신들에게 "비 오는 날의 나들이"라는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겨드렸다.

천태종 남북공동학술 세미나 개최

대각국사 의천 생애조명

대한불교 천태종은 20일과 21일 진행된 개성 영통사 복원 8차 단정 지원 방에서 북한 영통사 복원을 기념하고 대각국사 의천스님의 생애를 조망하는 남북공동학술 세미나를 오는 8월 19일 개성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천태종 사회부장 무원 스님과 북측 조선경제협력위원회 김성철 국장이 서명한 합의서를 교환하고 7월말까지 주제발표를 마감할 예정이다. 또한 11월 영통사 낙성식에 맞추어 논문집을 발표하기로 하였다. 천태종은 이번 남북학술세미나의 의미는 천태종의 정당성과 역사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 중요한 행사라고 밝혔다.

불자대상 '황우석교수', '박세리선수'

불교를 흥포한 불자선정

조계종이 2004년부터 시행하는 '불자대상' 수상자에 서울대 임상수 의학과 황우석교수와 골프선수 박세리씨를 선정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5월 20일 공적심사위원회(원장 성관)를 개최하고 "인간배아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해 학술분야에서 미적분을 이룬 황우석교와 최연소 미국골프 명예의 전당 가입자격을 획득한 박세리선수를 올해 불자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으며 시상식은 26일 조계사에서 열리는 봉축 법요식에서 거행되었다.

불자대상은 조계종이 문화, 예술, 학술, 교육, 복지, 환경, 통일, 국제, 스포츠, 사회봉사분야 등에서 한국 불교의 위상을 드높이고 불법의 흥포에 기여한 바가 큰 불자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수여하는 상이다.

서울대 황우석교수는 1999년 국내 최초 체세포복제 송아지 '영롱이' 연구와 광우병 내성을 지닌 소 개발에 이어 올해 초 세계 최초로 인간 배아줄기세포의 배양에 성공했다. 박세리 선수는 미국 여자골프에 활약중이며 1998년 맥도널드 챔피언십 등 주요대회에서 총 2회 우승했다.

명제한의원
599-4589

명제한의원
명제한의원은 첨단 의료기기와 안락한 진료실, 최상의 진료서비스로 여러분 가정의 주치의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전문클리닉
다이어트 비염

진료시간
평 일 : 오전 10:00 ~ 오후 6:00
토 요 일 : 오전 10:00 ~ 오후 4:00
점심시간 : 오후 1:00 ~ 오후 2:00
공 휴 일 : 예약진료합니다. 일요일 : 휴진

명제한의원
원장 김 준 영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67-29번지
한일빌딩 2층
전화 : (02)595-1075(한방치료)

주차안내 : 언덕사거리에 있는 방배 주차장에 주차하시면 무료입니다.



부처님 오신날 연등축제



마음 밝게 가지면 정토의 길 열려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서울 동대문 야구장과 부산 부산역광장에서 열린 연등축제에서 총지종의 연희단과 교도들이 장엄하고 화려하게 제작한 준제갈인의 장엄등과 태장계 만다라의 중대팔엽원을 형상화한 팔엽원등을 들고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고 소원성취를 발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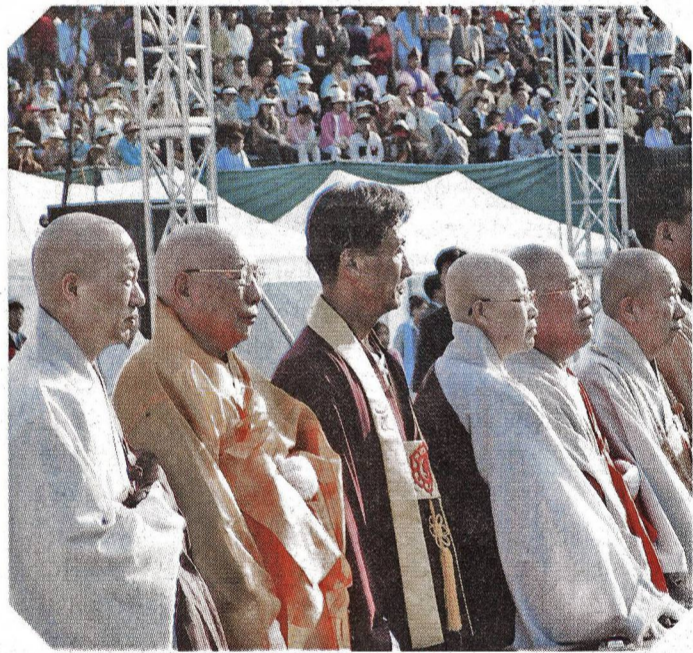
부산지역 총지종 교도들이 거래행진을 하고 있다.



총지종 서울 경기 합창단을 주축으로 한 연희단이 불자들로부터 큰 감채를 받았다.



꽃송이를 높이 들고 장단에 맞춰 흥겨운 한미당을 펼치고 있다.



우승 통리원장과 각 종단 대표들이 연등점화

천년의 잠을 깨고
우리 앞에 나타난 밀교(密敎)!
법신대일여래 비로자나부처님의
무언의 설법을 통하여 마음의 비밀을 깨달음으로써
즉신성불에 이르게 하는
정통밀교의 숭고한 가르침이 여기에 있다.
오탁악세를 정화하고 무량중생을
고통에서 구제할 비밀의 문!
그 문의 열쇠가 여기에 있다.



준제갈인을 형상화한 장엄등과 총지종 깃발이 하늘을 향해 손짓한다.



화려한 궁중복에 매혹당한 관중들



각종단 대표들이 연희단의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계·정·혜로 해탈의 길을 인도하는 총지종



전통등 경연대회 시상식에서 서울지회장 김은숙 보살이 상을 받고 있다.



총지종 깃발과 장엄등, 풍물패를 필두로 스승님과 교도들이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